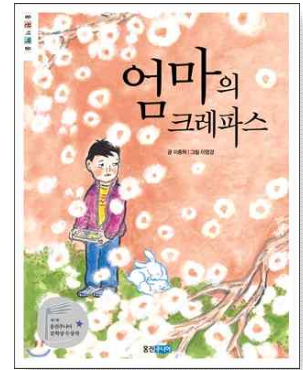


엄마의 크레파스



★ 핵심 주제

- 엄마
- 가족
- 사랑

★ 활용 학년 및 성취 기준

	3-4학년군
성취 기준	[4국01-04] 적절한 표정, 몸짓, 말투로 말한다. [4국02-03] 글에서 낱말의 의미나 생략된 내용을 짐작한다. [4국04-03] 시각이나 청각 등 감각적 표현에 주목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4국05-05] 인물, 사건, 배경에 주목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4국05-03]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고 표현한다. [4국03-03]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4사02-03] 옛 사람들의 생활 도구나 주거 형태를 알아보고, 오늘날의 생활 모습과 비교하여 그 변화상을 탐색한다. [4도02-01] 가족을 사랑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고, 가족 간에 지켜야 할 도리와 해야 할 일을 약속으로 정해 실천한다. [4과05-01] 여러 가지 식물을 관찰하여 특징에 따라 식물을 분류할 수 있다. [4미02-03] 연상, 상상하거나 대상을 관찰하여 주제를 탐색할 수 있다.

★ 온 책 읽기 활동

🌱 읽기 전	🌿 읽기 중	🍎 읽기 후
활동 주제	소제목	활동 주제
• 숨은 낱말 찾기 • 이야기 나와라! 똑딱!	1. 꽃길 2. 봄날의 풍경 3. 안녕, 엄마 4. 여우 꼬리 불꽃 5. 그 여자를 쫓아내야 해! 6. 왕자표 크레파스 7. 뱀 장수할아버지 8. 가출 9. 토끼몰이 10. 코끼리 산의 오두막집 11. 엄마의 풍경	• 감각적 표현 • 두 가지 사건 • 낱말 찾기 • 연극 놀이 • 마음 들여다보기 • 나였다면 1 • 나였다면 2 • 「4B연필」 이전과 이후
		• 책표지 다시 들여다보기 • 우리 엄마의 풍경 그리기

읽기 전 활동

숨은 낱말 찾기

학년 반 번

이름

★ 책 속에 나오는 낱말의 사진과 문장을 보고, 숨은 낱말을 찾아 써 봅시다.



사진출처: 네이버블로그, Around you Gardening

가늘고 연약한 줄기 끝에
알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7쪽-



사진출처: 국립중앙과학관, 우리생활속의 나무

그렇게 해마다 조금씩 자란
회양목을 엄마의 병실
창가에 가져다 놓은 사람은
아빠였다.

-11쪽-



사진출처: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이따금 바람에 휘날리는
벚꽃 이파리들이 아빠
머리 위나 핏기없는 엄마
입술 위로도 시나브로 떨어져
내렸다.

-13쪽-



사진출처: 두산백과

앵두꽃 주위로 벌과
나비가 모여들었다.

-25쪽-



사진출처: 이승호, 푸른길, 한국기후,문화산책

한겨울이 아닌데도 나는
벌판에서 혼자

쥐볼놀이를 하고
있었다.

-38쪽-



사진출처: 곽윤섭기자, 한겨레(2005.9.2.)박물관여행 기사중

나는 입술에 힘을 주고

양은대야를
노려보았다.

- 47쪽 -



사진출처: 두산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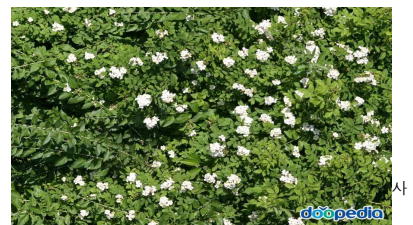
나는 주먹만 한 크기로 잘개
쪼갠 **연탄재**를 전대에
담아 어깨에 둘러맸다.

-61쪽-



사진출처: 네이버블로그, 우끼요잡화점

나는 여자가 놓고 간 왕자표
24색 **크레파스**와 스무
장도 넘을 것 같은 두꺼운
스케치북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 거렸다. -71쪽-



사진출처: 두산백과

나는 작고 귀여운 아기
토끼가 사라진
새하얀 **필레나무** 숲을
바라보면서 속삭였다.

-136쪽-



이야기 나와라! 똑딱!

학년 반 번

이름

★ 차례 속에 나온 낱말들을 3개 이상 골라서, 나만의 이야기로 상상해서 써 봅시다.

꽃길	봄날의 풍경	안녕, 엄마	여우 꼬리 불꽃	그 여자를 쫓아내야 해!	
왕자표 크레파스	뱀 장수 할아버지	가출	토끼몰이	코끼리 산의 오두막집	엄마의 풍경

예 나는 꽃길을 걷고 있었다. 멀리서 엄마가 보여서 “안녕, 엄마”하며 인사를 했다. 엄마는 어렸을 때 보았던 뱀 장수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엄마는 토끼를 잡으러 토끼몰이를 하다가 길을 잃어서 코끼리 산의 오두막집에 갔는데 봄날의 풍경이 너무 멋져서 한참을 구경했다. 그 때 마침 집주인 뱀장수 할아버지를 만나서 왕자표 크레파스를 선물로 받았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전에 가출했던 동네 언니를 만나 다행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엄마의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었다.

★ 친구들과 차례에 나온 낱말을 사용하여 ‘이야기 이어 꾸미기 놀이’를 해 봅시다.

<놀이 방법>

1. 낱말카드를 뒤집은 후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한다.
2. 1번 친구가 차례에 나온 낱말 중 하나를 골라 뒤집고 그 낱말을 넣어서 1~2 문장으로 만든 이야기를 들려 준다.
3. 2번 친구가 낱말을 뒤집고, 앞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야기를 꾸민다.
4. 돌아가면서 놀이를 하고, 뒤집은 낱말 카드로 이야기를 만들기 어려우면 “통과”를 외친 후, 다른 카드를 뽑아 다시 도전한다. 이때, 통과는 2번만 할 수 있다.



뒤쪽의 활동 자료를 올려서 사용하세요.

<활동자료-차례 속 낱말 카드>



꽃길

봄날의 풍경

왕자표 크레파스

뱀 장수
할아버지

안녕, 엄마

여우 꼬리 불꽃

가출

토끼몰이

그 여자를 쫓아내야 해!

코끼리 산의
오두막집

엄마의 풍경

 읽기 중 활동	1. 꽃길 ~ 2. 봄날의 풍경		학년 반 번
	감각적 표현		이름

★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흥내 내는 말을 알맞게 연결해 봅시다.

나는 기쁜 나머지 () 뛰었다.	•	○ 뽀족뽀족
작고 귀여운 새싹이 하루가 다르게 ()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했다.	•	○ 쇠쇠
엄마 입에서는 ()하는 바람 소리만 들릴 뿐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	○ 토로록
(). 엄마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	○ 폴짝폴짝
새하얀 꽃잎들이 () 엄마 아빠 몸 위로 떨어져 내리는 순간,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	○ 하늘

★ 주인공이 겪은 일에 대해 생각해 보고, 느낌이나 생각을 실감 나게 표현해 봅시다.



(1) 주인공은 왜 사생대회에 나가지 못했나요?

예 스케치북과 4B연필이 없었기 때문에

(2) 양길자 선생님이 “넌 교실로 들어가!”라고 말했을 때,
주인공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예 창피하고, 실망스럽다.

(3) 작가는 창혁이의 심정을 아래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처럼’을
넣어 문장을 완성해봅시다.

허리가 푹 부러진 몽블랑크레파스처럼 기가 죽은 내가 크레파
스 상자 속에 쓸쓸히 누워있었다. -23쪽-

예 물에 젖은 휴지 처럼 기가 죽은 내가 의자에 축 처져 앉아 있었다.

 읽기 중 활동	3. 안녕, 엄마 두 가지 사건	학년 반 번	
		이름	

★ 주인공이 겪은 두 가지 사건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사건 : 엄마의 죽음		
(1) 창혁이는 어떤 일을 겪었나요? 예)엄마가 돌아가셨다.		(2) 엄마의 죽음을 나타내는 낱말을 찾아보세요. 예)앵두꽃, 상중, 상복, 깊은 잠, 가뭄에 짹짹 갈라진 논바닥
(3) 창혁이가 어떤 생각,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찾아 써 봅시다. 예)나는 울지 않았다. 예)내가 엄마랑 무슨 약속을 했더라 예“싫어, 엄마 못 가게 해.”		(4) 작가는 이 장면을 어떤 색, 소리, 냄새로 표현했나요? 예)까만 밤 상중이라고 적힌 노란등 예)하얀 앵두꽃이 지는 모습 예)집 안은 묵놓아 우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우는 소리)

두 번째 사건 : 엄마와의 추억		
(1) 창혁이는 어떤 일을 겪었나요? 예)오랫동안 잊었던 엄마의 냄새를 기억해냈다. 예)엄마가 보고 싶었다.		(2) 엄마와의 추억을 나타내는 낱말을 찾아보세요. 예)목욕, 엄마 몸에서 나는 아주 특별한 향기, 엄마의 냄새
(3) 창혁이가 어떤 생각, 말을 했는지 찾아 써 봅시다. 예)학교 들어가기 전 어느 겨울날, 공중목욕탕에서 엄마와 목욕을 했다.		(4) 작가는 이 장면을 어떤 색, 소리, 냄새, 촉감으로 표현했나요? 예)빨간 예쁜이 비누 냄새보다 훨씬 좋은 그 냄새 예)다이알 비누향기 예)엄마의 부드러운 손



읽기 중 활동

4. 여우 꼬리 불꽃

학년 반 번

낱말 찾기

이름

★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찾아 색칠해 봅시다.

둔	부	대	남	장	지	배	신	아	빠	4
갑	극	뱀	장	수	하	다	주	까	학	기
질	성	민	성	스	실	무	책	년	학	마
새	은	국	규	쥐	간	양	덤	엄	마	새
탕	엄	땀	이	불	장	식	은	습	진	탈
불	냉	마	노	놀	리	품	짝	대	리	둔
안	큼	엄	마	이	파	리	둥	이	야	화

- (1)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나 창혁이는 ‘4 학 년’이 되었다.
- (2) 창혁이 집에 온 여자는 ‘뱀 장 수’ 할아버지’의 딸이라고 소문이 났다.
- (3) 큰 엄마는 그 여자를 우리 집에 새 엄 마로 들이려고 데려온 것 같았다.
- (4) 뱀장수 할아버지 같은 괴물이 하루아침에 내 외할아버지로 둔 갑한다고 생각하니 팔뚝에서 소름이 돋았다.
- (5) 꿈속에서 창혁이는 벌판에서 혼자 쥐 불 놀 이를 했다.
- (6) 그 여자는 창혁이가 쥐불놀이하는 꿈을 꾸는 날 쓴 오줌이 묻은 이 불을 빨았다.
- (7) 창혁이는 화를 발끈 내며 오른발로 양 은 대 야를 냅다 걷어찼다.
- (8) 엄마의 무덤에 찾아가 그 곁에 누웠는데 상수리나무 이 파 리 냄새가 났다.
- (9) 붙잡힌 잠자리는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처럼 얇고 투명한 날개, 마른 나뭇가지 같은 꼬리, 불 안에 사로잡힌 눈이 창혁이 모습 같았다.
- (10) 창혁이는 엄마에게 아빠의 배 신을 일러바치리라 결심을 했는데 한 마디도 하지 못했다.

 읽기 중 활동	5. 그 여자를 쫓아내야 해!		학년 반 번	
	연극놀이		이름	

★ 아래의 설명을 읽고, 알맞은 지문이나 대사로 연극 대본의 빈칸을 채워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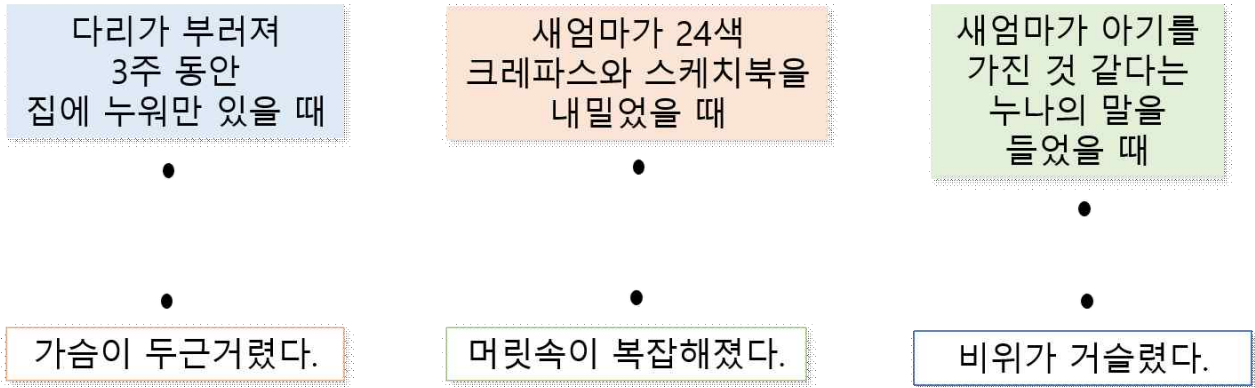
지문	인물의 동작, 표정, 심리, 말투 등을 지시하거나 설명하는 부분
대사	연극이나 영화 등에서 배우가 하는 말
예) 창혁: (따지듯이) 혹시, 뭐요??	
지문	대사

장면 제목 : 양은 대야 실종 사건(47~52쪽)			
등장 인물	나(창혁이), 옛장수 강배아저씨, 여자		
장소	마당→시장→집안	필요한 소품	양은 대야, 옛판, 갱엿, 엿을 담은 봉투
대본	마당에 들어선 창혁, 뒤뜰로 돌아 양은 대야를 노려본다. 창혁:(혼잣말로, 예) 입술에 힘을 주며)이게 없어지고 나면 꽤 큰 소동이 벌어지겠지? 양은 대야를 덩석 붙잡고, 죽어라 앞으로 달린다. 옛장수 강배아저씨 앞. 강배아저씨: (예) 환한 표정으로)이건 아직 쓸만한 물건인데, 왜 엿 바꿔 먹으려는거냐? 창혁: 아저씨는 그런 거 알 필요 없고요, 엿이나 많이 주세요. 강배아저씨: 응응, 그래. 그럼 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책임 못 진다. 창혁: 알았어요. 예) 아무 문제없을 거니까 얼른 엿이나 주세요. (중략) 다음 날 아침, 여자는 고개를 가웃거리며 집 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무언가를 찾는다. 여자: (창혁이에게 다가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얼굴을 살핀다.) 창혁: (예) 못마땅한 표정으로)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여자: 아, 아니야. 혹시……. 창혁 : (따지듯이) 혹시, 뭐요?? 여자: 예) 혹시 양은 대야 못 봤니? 분명 그저께까지 뒤뜰 담벼락에 걸려 있었는데……. 창혁 : (화를 내며)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난 몰라요 여자 : (예) 검은 구름이 낀 표정으로)그래, 알았다. 그냥 물어본거야. 꽤 값나가는 살림살이인데 이걸 어쩌나		

★ 친구들과 배역을 나누어 적절한 표정, 몸짓, 말투로 연극놀이를 해 봅시다.

 읽기 중 활동	6. 왕자표 크레파스 ~ 7. 뱀장수 할아버지 마음 들여다보기		학년 반 번 이름	

★ 이야기를 떠올리며 창혁이의 마음이 어땠을지 맞는 것끼리 줄을 이어 봅시다.



★ 한겨울 죽은 아기를 땅속에 묻을 때 등장인물들의 마음은 어땠을지 상상해서 써 봅시다.

나무
예 내가 너를 따뜻하게 감싸줄게. 두려워하지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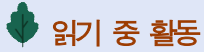
뱀장수할아버지
아기야, 어쩌다 죽었니 가엾은 것.....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잘 묻어 줄게

아기엄마
아기야, 정말 미안해 엄마는 너를 잊지 못할거야 사랑해

아기
예 엄마 걱정마세요. 이 속은 정말 따뜻해요. 저 때문에 많이 울지 마세요.

창혁
예 흙 속에 갇힌 아이는 얼마나 무서울까, 엄마생각이 나서 너무 무서워.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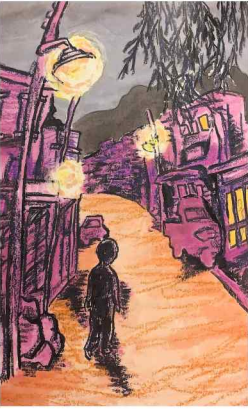
8. 가출

학년 반 번

나였다면 1

이름

★ 창혁이가 가출했을 때 겪은 일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찾아 ○에 색칠해 봅시다.



- ☐ 집을 나와 온몸이 땀땀 얼어붙은 채로 이발소 처마 밑에 서 있었다.
- ☐ 너무 추워서 마음속으로 애타게 누나의 목소리를 찾았다.
- ☐ 기차역 대합실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집이었다.
- ☐ 아빠는 창혁이를 혼내지 않았다.

★ 내가 창혁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선택하고, 고른 이유를 써 봅시다.

선택 내가 창혁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빠가 어떻게든 새엄마를 집에 못 들이게 한다.

임신한 새엄마를 받아들인다.

창혁이처럼 가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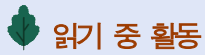
나만의 해결방법 :



왜 그렇게 했나요?



이어질 이야기 상상하기



9. 토끼몰이 ~10. 코끼리 산의 오두막집

학년 반 번

나였다면 2

이름

★ 내가 토끼몰이를 했다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봅시다.

그곳에 하얀 토끼가 몸을 바짝 웅크린 채 숨어 있었다. 몸에 상처가 있는지 한쪽 다리에 붉은 핏물이 배어 있었다. (중략) 도일이는 두 손을 구멍 속에 집어넣어 토끼를 끌어냈다. -112쪽-

“토끼를 그냥
놓아주자!”

헤리: 다리가 부러졌나봐,
안쓰러워. 새끼도 뱉자나.

창혁: 상처를 입었으니까 살려주자.
어미 토끼를 살리면 새끼도
살릴 수 있어.



“토끼를 잡아서
먹자!”

도일 : 이대로 놔준다 해도 토끼는
어차피 죽고 말아. 아니면 얼어
죽거나.....

민성 : 무슨 수로 우리가 토끼를 살려?

VS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써 봅시다.

★ 코끼리 산의 오두막집에 가서 뱀 장수 할아버지를 만나고 창혁이가 느낀 점을 찾아 써봅시다.



상처입은 토끼를 보니

우리 집에서 내쫓긴 덕천댁이

같은 처지 같아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

-122쪽-

 읽기 중 활동	11. 엄마의 풍경		학년 반 번
	‘4B연필’ 이전과 이후		이름

★ 빈칸을 완성하고, 「4B연필」을 받은 이전과 이후에 창혁이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래 <보기>에서 찾아 써 봅시다.

<보기>	싫다	재밌다	즐리다	미안하다
	놀라다	후련하다	기가 막히다	

「4B연필」을 받기 전에 일어난 일		창혁이의 마음
(1) 학교에서 집에 돌아와 보니 배가 산만해진 덕천택이 안방에 누워있었다.	→	놀라다
(2) 아빠가 새엄마가 곧 해 산 을 해서 너희들 동생을 낳을 거라고 말해주셨다.	→	기가 막히다
(3) 여자가 낳은 아기 몸에서 시큼하고 달 착 지 근 한 냄새가 났다.	→	싫다
(4) 나는 막대기로 땅에 엄마 품에 안긴 아기와 배가 불룩한 토 끼 를 그렸다.	→	가엾다

뜻밖에도 여자가 치마 주머니에서 어둡사리 꺼낸 건 그림 그릴 때 쓰는 피노키오 4B연필이었다. -131쪽-

「4B연필」을 받은 후에 일어난 일		창혁이의 마음
(1) 끝까지 숨기려 했던 “ 미 안 해 요 ”라는 말을 용기 내어 토해냈다.	⇒	후련하다
(2) 새엄마가 돌아가시고 새엄마의 슬픈 얼굴을 떠올려보았다.	⇒	미안하다
(3) 아빠가 새엄마의 무덤을 엄마 무덤 옆에 쓴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	⇒	고맙다 미안하다

★ 나에게도 진심이 담기거나 의미가 있는 물건을 선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떠올려봅시다.

어떤 물건인가요?

언제, 누구에게, 왜 받았나요?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 읽기 후 활동

책표지 다시 들여다보기

학년 반 번

이름

★ 책표지를 다시 들여다보고, 이 책을 추천하는 글을 써 봅시다.



(2) 누구일까요?

예) 덕천댁, 새엄마, 여자

(1) 누구를 뜻하는
그림(앵두꽃)일까요?주인공(창혁이)의
친엄마(3) 주인공은 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예) 새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먼저
죽은 창혁이 엄마에게 미안해서 등(4) 누구를 뜻하는
그림일까요?예) 덕천댁, 새엄마,
여자와 그 아기(창혁이
동생)

저는 「엄마와 크레파스」 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 _____

추천하는 이유:

1. _____

2. _____

🍎 읽기 후 활동

우리 엄마의 풍경 그리기

학년 반 번

이름

★ 내가 기억하고 싶은 엄마와의 추억을 그림으로 그려 봅시다.

💡 가로 12.7cm, 세로 8.9cm
크기로 그리면 아래 액자를
만들 수 있어요.

★ 색종이로 액자를 만들어 위에 그린 그림을 오려 넣은 후 우리 엄마께 선물해 봅시다.

준비물: 색종이 2장, 풀, 가위

색종이 액자 만들기 영상 링크
<https://youtu.be/e-aUQyidj9k>